

# 개항장 부산 일본 거류지의 소비공간과 소비문화\*

이 가 연\*\*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식민 도시로의 변화와 소비 공간 창출
- III.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상품의 출현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1876년 개항과 함께 조선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동반하여 문화적으로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부산에는 개항 이후 기존의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일본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이곳은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을 위한 공간이었고 식민 지배자로서 권력의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거류지를 중심으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근대 새로운 문화 조류의 하나인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탄생이 그것이다. 부산의 일본 거류지는 시가지의 공간적 구조에서 거의 일본과 다를 바 없었다. 공간 구조의 변화는 도시문화생활 전반에 영

\* 본 논문은 2019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 주최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교류’ 학술대회 때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사업단 연구교수 / [dict43@hanmail.net](mailto:dict43@hanmail.net)

향을 끼쳤다. 거류지에는 행정과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신사, 사찰, 극장 등의 문화 시설이 등장하였다. 식민도시라는 것에서 불균등성이 전제되어 있지만, 부산은 조선적인, 일본적인, 서구적인 것들이 혼재된 공간이 되어 갔다. 이때 부산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고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권력관계가 접합되는 중층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곳은 이 모든 것을 뛰어 넘는 근대적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 기도 하였다. 거류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상점들로 부산은 생활의 공간에서 점차 거대한 상품 전시장으로 변화해 갔다. 이에 동반한 소비행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소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가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소비행위에는 지역사회 제반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질들이 필연적으로 반영된다. 개항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된 식민도시 부산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거류지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상업에 종사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행정, 변천정, 본정 등의 변화가에는 근대적 상업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패션의 선두주자 의복과 여러 생활 잡화를 파는 가게, 일식·양식 등 이제까지 쉽게 접하지 못한 전문음식점들이 그 거리를 가득 매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문화가 창출되었다. 상점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화려한 장식과 상품진열, 경품행사, 바겐세일 등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렇다면 이 소비문화의 향유자는 누구였을까. 분명한 것은 소비공간과 소비문화를 이야기할 때 향유자는 식민자이고 원주민은 여기에서 완벽히 소외된 자들이라고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민지 도시는 필연적으로 식민자와 원주민들의 ‘섞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을 부각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섞임’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와 ‘배제’, 그에 따른 ‘불균등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식민성을 담보한 근대적 소비문화의 발전은 시작부터 불균등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부산, 일본 거류지, 상업, 문화, 소비문화, 오복점, 잡화점, 양복점, 음식점, 식민성

## I. 머리말

문화교류의 사전적 의미는 ‘이질문화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을 일컫는다. 오늘날의 문화교류는 기본적으로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평등성을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적 발전을 위하여 각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보다 깊게 하는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질문화의 상호접촉과 전파는 주로 국가 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배와 피지배관계에 수반되는 수직 확산적인 형태를 취해 왔다.<sup>1)</sup> 한편 문화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지식, 가치관 등 모든 관습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를 문화라 한다면 문화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문화는 항상 누적되면서 변화하는데 문화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개 인구이동, 상업의 발달, 혁명 등 사회·정치적 변동이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조선 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동반하여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부산에는 개항 이후 기존의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일본 거류지가 설치되었다.<sup>2)</sup> 이곳은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을 위한 영역이었고 그들이 식민

1)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20. 1. 8.)

2) 대개 개항장 내 외국인 거주지는 ‘거류지’ 또는 ‘조계지’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거류지’는 일본 측에서 계속하여 사용을 주장한 명칭이었고, ‘조계지’는 조선 측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명칭이었다. 1906년 일본 이사청이 세워진 이후 일본 측 명칭인 ‘거류지’ 또는 ‘전관거류지’로 바뀌어 사용하게 되었다. ‘거류지’와 ‘조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 차입의 방법에 있는데, ‘거류지’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유권 교섭을 통한 토지 영차, ‘조계지’는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한 토지 영차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조계’와 ‘거류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성현, 『‘조계’와 ‘거류지’ 사이-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입장 차이와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62, 한일관계사학회, 2018을 참조할 것). ‘조계지’ 설정을 통해 조선 측은 일본인들의 확장을 어느 정도 경계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했다. 이 글에서는 ‘조계지’와 ‘거류지’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되,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관거류지’ 또는 ‘거류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개항장 내 일본인의 상업 활동

지배자로 세력을 떨쳤던 권력의 공간이었다. 일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장소였으며 식민지 공간의 지배 집단인 일본인들의 우월감과 상징성이 반영된 공간이기도 했다. 이른바 식민성이 담보된 곳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상호평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교류라는 용어로 일본 거류지 내에서의 문화교류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신 이곳은 근대로의 이행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적 변화가 일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부산 곳곳에는 전근대와 다른 문화적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근대의 새로운 문화 조류의 하나인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싹튼 곳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소비문화와 관련해서는 경성을 배경으로 1920~30년대 백화점,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도시의 소비문화를 설명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sup>3)</sup> 그러나 부산을 비롯하여 개항기 일본인 거류지가 설정된 지역의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sup>4)</sup> 이 글에서는 일본 거류지라는 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상점들을 근대적 소비문화의 탄생으로 보고 이를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부산의 일본 거류지에 생겨난 수많은 상점들은 도시 소비문화의 시작을 알렸으며 식민도시 부산의 근대성을 드러내는 코드로 작용하였다.<sup>5)</sup>

---

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3) 배개화, 「소비하는 도시와 모더니즘」, 『한국현대문학연구』 8, 2000. 김경일,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 2002. 김백영,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1930년대 서울의 백화점과 소비문화」, 『사회와 역사』 75, 2007. 전중환,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충무로 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8, 2013.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이연, 2013.
- 4) 일제시기 부산의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로는 전성현의 「일제시기 부산의 중심 상점가와 도시문화」, 『역사와 경계』 92, 2014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변화가인 장수동 거리를 둘러싼 상점과 야점 등의 도시문화를 자본주의 소비문화(1910년대), 식민주의 지역문화(1920년대), 제국주의 전쟁문화(1930년대 후반~40년대 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5) 본문에서는 주로 일본 거류지가 설치되었던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항에서 1914년 부제 실시 전후로 시기를 한정하였다.

## II. 식민 도시로의 변화와 소비 공간 창출

### 1. 부산 일본 거류지의 도시경관

일반적으로 도시는 공간으로서 존재하고, 그 공간은 균질성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균질성의 제어를 받으면서 다양한 중층적인 관계-결합을 만들어낸다. 도시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적 대인관계의 규칙이나 도시적 생활양식, 혹은 도시 생활의 리듬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는 다양성, 중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동한다. 여기서 ‘근대’ 도시가 태동하였다.<sup>6)</sup>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 이하 조규)>의 체결로 부산항이 개항되었다. 이후 조규의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於朝鮮國議政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이하 무역규칙)>을 차례로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개항장 내에서의 일본화폐 유통,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조선연안 무역에서의 일본의 특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산에는 종래 초량왜관에 일본 공사관이 설치되었고, 일본 공관 내에는 일본인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초량왜관의 수문을 철거하여 공관 밖 사방 10리까지 일본인의 통행 및 일본상품의 매매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예외로 부산과 동래의 왕래권을 인정하였다.<sup>7)</sup>

6) 나리타 류이치 저·서민교 역, 『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 뿌리와 이파리, 2011, 20~21쪽.

7) 전근대 시기 부산은 행정구역상 ‘동래부’에 속했다. 초량왜관 또한 동래부사가 관할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개항 이후 일본 거류지가 설정된 지역도 원래는 행정구역상 ‘동래부’에 속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개항 이후 거류지가 설정되면서 새로운 공간적 변화가 일어났고 동래와 부산은 점차 구별되기 시작했다. 즉, 부산은 행정구역상 동래부에 속해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의 관리 하에 놓인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다음해 1877년 1월, <조규 부록> 제3관<sup>8)</sup> 즉, ‘개항장에서 일본인의地基租借 인정’에 의거하여 <釜山口租界條約(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부산 일본 ‘거류지’의 토지장정과 조계규칙을 정한 협약이었다. 이를 근거로 초량왜관 약 11만평의 부지를 일본 거류지로 설정하고 이곳에 이사청, 경찰서, 재판소 등 각종 통치기구와 법규를 만들어 자치적인 지배를 도모하였다.<sup>9)</sup> 이미 1876년 11월 일본우편국이 설치되었고 1878년 1월에는 일본의 제일국립은행 부산지점이 개점하였다. 1879년 10월에는 왜관의 관수가 자리에 일본영사관이 설립되었다. 초량왜관 시절 동관 주변은 일본영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은행, 대규모 상점들이 입주하면서 중심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서관 주변은 개항 이후 도항한 소규모 상인들의 거처와 상점들로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본 거류지의 서쪽과 동쪽을 잇는 거리에 장수통(현 광복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80년에는 정식으로 영사를 파견하여 종래의 ‘초량 공관’을 ‘대일본 제국 부산영사관’으로 개칭하였다.<sup>10)</sup> 거류지 확대를 위하여 1880년 7월에는 부산 북빈 일대를 확보하였고 1883년에는 거류지 10리 이내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1885년에는 절영도 토지 일부를 일본해군용지로 조차하였다. 이러한 거류지의 확대, 토지의 매수·매도 등은

---

설정된 ‘중층적 공간’이 되었다. 병합 이후 1914년에 ‘府制’가 실시된 이후 완전히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분리되었다. 이 글에서의 부산은 동래군에 속한 부산을 의미한다. 지금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일부이다.

- 8) 『조일수호조규 부록』 제3관 : 議定된 조선국 각 통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택지를 빌어 거주하는 자는 땅 주인과 상의하여 금액을 정해야 하며 관청에 속한 땅에 있어서는 조선국 인민과 동등하게 조세를 바친다. 부산 초량항의 일본관에 종전에 설치한 守門과 設門은 지금부터 철폐하고 새로이 程限에 의하여 경계 상에 罽말을 세운다. 다른 두 항구도 이 규례에 따른다(『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13권, 고종13년 7월 6일).
- 9) 이우영, 『한말 일본인 거류지의 설정과 그 역할』, 『경북대학교 논문집』 13, 1969, 3~4쪽.
- 10)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87~88쪽.

더 많은 일본인들을 부산으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인들의 증가하는 포다시 거류지의 확대를 불러왔다.

계다가 시가지 정비도 본격화하여 도로의 확장, 상수도 설비 등이 이루어졌다. 1884년에는 통신·금융시설도 더욱 확충되어 일본 나가사키-부산의 해저전선시설이 완공되었고 우편전신국도 설치하여 통신사무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은 일본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었다.<sup>11)</sup>



<그림 1> 포산항건취도 中 용두산과 그 주변의 모습(1881, 부산근대역사관)

용두산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상점 등이 늘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시한 부분에 작은 도랑이 있었는데 1880년대 중반 복개되었다. 이후 이곳을 중심으로 상점들이 들어서서 일본 거류지의 중심 변화가가 되었다.

11) 김은희·박용숙, 『개항초기(1876~1885)의 일본인의 상업 활동 - 부산항을 중심으로』, 『코기토』 15, 1976, 10쪽.



<그림 2> 1903년 부산항시가 및 부근 지도

용두산을 둘러싼 형태로 본정, 변천정(장수동), 행정, 서정이라는 행정명을 붙였다. 이곳에 각종 행정기구와 상업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부산은 마치 일본의 소도시를 옮겨놓은 것 같은 경관을 가지게 되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외국인의 토지 거래와 소유가 사실상 합법화됨에 따라 거류지 주변의 많은 토지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갔다. 일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해지자 해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확보하는 한편 서부 지역으로 시가지를 확장하였다. 1906년에는 거류민단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에도 거류민단역소가 설치되고 일본인들은 거류지 행정의 일체를 자치적으로 집행하였다. 일본 영사관은 이사청으로 개편되었고 일본 거류지도 ‘전관거류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항 직후 80여명에 불과하던 부산의 일본인은 1910년 강제병합을 전후해서 22,000여명으로 증가하게 된

다.<sup>12)</sup>

개항 이후 부산은 말 그대로 ‘조선 속의 일본’, 즉 식민지 도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부산을 당시 미국인 선교사 알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부산은 완전히 왜색 도시이다. 도시 변두리로 가지 않고는 조선 사람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인은 아주 우아한 백색건물을 영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1884년 9월 14일)<sup>13)</sup>

러시아 참모 본부 소속 육군 대령이었던 카르네프는 1885년부터 1896년까지 조선 전역을 여행하며 풍물과 문화, 모습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가 본 처음 마주한 부산의 모습은 알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의 기록에는 일본인 거류지의 상점가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일본인 거리는 부산의 작은 만 서쪽 해안에 있었다. 그곳에는 창고들이 이어져 있는 작은 세관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일본 우선회사 사무소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세관에서 서쪽으로 가면 보도에 나무를 깔아놓은 큰 거리가 있었다. 그곳에는 일본 미용소, 여관,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파는 2층짜리 상점들이 죽 들어서 있었다. 이 상점에서는 등불, 식기, 부채, 지갑, 일본산 직물, 가위, 칼, 신발 등등을 팔았다. 거리 끝에는 일본 우체국과 전화국이 있었다. 서북쪽으로는 돌로 포장된 다른 큰 거리가 뻗어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조선과 일본 상점들이 있었는데, 그 상점들에서는 소금에 절여 말린 명태, 조선산 목면, 점토와 무쇠 그릇들, 반짝거리는 금속 파이프, 긴 담뱃대용 갈대줄기 등을 팔고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일본 다다미 제작소 등이 들어서 있었다. 서쪽으로 조금 가면

12) 釜山商業會議所, 『釜山要覽』, 1912, 8~9쪽.

13) Horace N. Allen 저·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 출판부, 1991, 22쪽.

골목이 하나 나오는데, 이곳에 일본 병영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일본  
영사관이 들어서 있었다.<sup>14)</sup>

카르네프가 본 부산의 모습은 사쿠라이 군노스케의 여행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쿠라이는 청일전쟁을 즈음하여 취재 목적으로 조  
선으로 건너왔다.

부산의 일본 거류지에는 이같이 戶數도 많고 인구도 많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관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 제국총영사관, 경찰  
서, 동아무역신문사, 우편전신국, 공립공원 등이 있고, 일본우선회사,  
오사카상선회사, 제일국립은행, 제백국립은행 등의 지점이 있다. 조  
선어학교, 공립소학교, 혼간지 별원도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완전하  
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또한 불완전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숙박시  
설도 비교적 갖추어져 있다. 오이케[大池], 도요타[豊田], 츠요시[津  
吉], 고지마[小島], 마츠노[松野], 후쿠시마[福島] 등이 모두 깔끔히  
정돈되어 여행자가 편히 쉴 만하다. 숙박료는 매우 싼데도 일본 국내  
의 숙박시설과 별다른 차이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음식점은 도쿄로  
[東京樓]와 게이한테이[京阪亭]를 최상으로 친다. 일반 손님이 가득  
들어차서 가무와 악기 소리로 밤새 시끌벅적하다. 대개 재류인들은  
요란스럽게 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sup>15)</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의 일본 거류지에는 시가지의 공간적 구  
조에서 거의 일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일본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공간 구조의 변화는 도시문화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거류지에는  
행정과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신사, 사찰, 극장, 유곽 등의 문화시설도

14) 카르네프 外 著 · 김정화 外 譯, 『내가 본 조선, 조선인』, 가야넷, 2003, 25쪽.

15) 사쿠라이 군노스케 著, 한상일 譯, 『조선시사』,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출판부,  
1993, 270쪽.

등장하였다. 식민도시라는 것에서 불균등성이 전제되어 있지만, 부산은 조선적인, 일본적인, 서구적인 것들이 뒤섞인 ‘섞임의 공간’이자 ‘혼종의 공간’이었다.

## 2. 근대 도시의 소비 공간

근대는 도시의 형성과 더불어 삶의 형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갔다. 개항 이후 조선에 등장한 개항장 도시들은 서서히 근대적 외관을 갖추어 갔지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비대칭적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식민지 도시의 전형들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볼거리와 더불어 개조와 문명의 이름으로 들이닥친 근대는 ‘식민지 도시’의 우울한 경관을 관통하여 사회 곳곳에 침투하였다.<sup>16)</sup> 발터 벤야민은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아케이드, 백화점, 사치품, 패션, 매춘부, 산책자, 부랑자, 유행, 권태 등 다양한 근대의 징후들을 발견하였다. 자연, 전원 풍경을 대체한 도시 거리의 파노라마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은 상품이었으며, 그럴 때 도시는 일순간 거대한 상품시장, 소비도시로 전이되었다. 벤야민에게 상품은 현대 문화 형태라는 총체성을 파악하게 하는 단편이었다. 상품 세계는 한계 없는 다양성을 원천으로 자신을 드러낸다.<sup>17)</sup> 도시의 파편적 이미지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는 시대의 심층을 포착하고자 한 벤야민의 시선을 한국 역사 속으로 소환하여 20세기를 전후한 시기 부산의 근대적 도시 풍경을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탐색해 보자.

일본 거류지에는 서양식의 건물과 일본식 건물이 섞여있고 그 외곽에는 조선인 주거지가 혼재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새롭게 만들

16)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이연, 2013, 8쪽.

17) 그램 질로르크 저·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235~245쪽.

어낸 공간에는 각종 공공건물들과 은행, 회사, 학교, 상점 등이 들어서서 외관상으로는 근대적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류지 내의 변화는 지배자(일본인)/ 피지배자(조선인)의 거주 공간의 이분화를 바탕으로 하는 식민지 도시 건설의 기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부산의 개항장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고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권력관계가 접합되는 중층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곳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대적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기도 했다. 도시 소비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거류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상점들로 부산은 생활의 공간에서 점점 거대한 상품 전시장으로 변화해 갔다. 이에 동반한 소비행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소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뛰어넘어 소비가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현상이다.<sup>18)</sup> 따라서 소비행위는 지역사회 제반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질들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개항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된 식민도시 부산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식민도시는 식민 모국의 경제적 공간이 ‘확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계획의 관념과 형태는 식민모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인식을 재생산하였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표현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sup>19)</sup> 일본은 타민족이 살고 있는 장소에 이질적인 일본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비교하면 기후 풍토, 습관, 인정 등이 다른 외국에까지 일본에서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이식하여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인은 다른 풍토 속에서 ‘일본적’인 것을 계속 고집하였다. 그래서 식민지에 이주한 다수의

18) 권혜경, 『현대 소비문화의 형성과정에 나타나는 젠더의 정치성과 고착화, 그리고 그 전복적 대응』, 『영미문화페미니즘』 14, 2006, 5쪽.

19) 앤소니 킹 저·이무용 역, 『도시문화와 세계체제』, 시각과 언어, 1999, 114쪽.

일본인은 일본식의 주택에서 살고 일본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하였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부산은 일본의 한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상품의 판매 방식이나 품목 또한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식민도시 부산의 소비문화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의 사례로 근대적 소비문화를 이끈 소비 공간을 살펴보겠다. 근대적 소비 공간은 물리적, 유형적공간의 개념은 물론 인식론적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즉, 여기서 물리적 측면의 소비 공간은 상점이나 백화점과 같이 구체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러한 소비행위와 소비문화의 공간적 이동, 전파, 공유를 가능케 한 대중적 장소를 의미한다. 반면 인식론적 공간은 잡지나 신문광고와 같이 새로운 미디어 소비문화의 확산과 같은 소비문화의 전파매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 Ⅲ.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상품의 출현

개항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으로 건너와 사업을 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유망한 상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각종 직물이었다. 조선인 남성들은 무지·무색, 여성은 견직물·화려한 염색을 좋아하니 그에 맞춰서 각종 직물을 판매하라고 하였으며, 메리야스와 화이트셔츠 등 각종 셔츠의 판매도 상당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복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견직물로 된 행커치프와 봉재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었고, 가방, 구두, 모자, 회중시계 및 손목시계, 안경 등의 소비도 늘어났다. 화장

20) 橋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199~120쪽.

21) 김은정·윤태영·고수진·고애란, 『한국 근대 소비문화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복식과 관련된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 2010, 23쪽.

용 비누와 세안용 비누가 따로 판매되고 있었고, 손거울은 조선인들이 거의 모두 휴대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주요 판매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일상 생활용품인 수건의 경우에도 일본 제품을 더 염가로 하여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 내면 장래 유망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sup>22)</sup> 여기서 제시한 물품들은 개항과 더불어 근대의 물품으로서 부산항에 전해진 것들이며 당시 소비문화의 선두에 서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식의 탄생과 함께 상업적 전문음식점도 새롭게 등장하였다.<sup>23)</sup> 부산에는 일본음식점은 물론 서양음식점까지 등장하여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었다.

## 1. 유행의 선두주자, 의류 · 잡화

일본 거류지에는 일본식 기모노를 파는 吳服店과 서양식 맞춤 정장을 주로 취급하는 양복점이 있었다.<sup>24)</sup> 吳服은 일반적으로 일본 전통 옷감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견직물을 지칭하기도 한다.<sup>25)</sup> 일본 사전에도 기모노용 직물의 총칭 또는 견직물, 면직물, 마직물의 총칭이며 고대 중국 吳國에서 전해진 직조 기술에 따라 만들어진 능직물을 오복이라고 한다.<sup>26)</sup> 한마디로 오복점은 일본 전통 의복을 만드는 각종 직물 및 완제품과 그에 어울리는 장신구들을 판매하는 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상점은 주로 17세기 에도[江戸] 초기에 교토, 오사카 등 대도시

22) 『朝鮮之實業』 제18호, 1906.12.10, 37쪽. 『朝鮮之實業』 제19호, 1907.1.10, 69쪽.

23) 주영하, 『음식인문학』, 휴머니스트, 2011, 214~215쪽.

24) 초기 오복점과 양복점 광고를 보면 오복점은 크게 일본식 기모노 완제품 및 옷감을 파는 곳으로 양복점은 정장을 파는 곳으로 구별하였으나 그 구별은 오래가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복점에서도 양복이나 셔츠류를 취급하기도 하고 양복점에 서도 전통 기모노 착장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부속 액세서리 등도 함께 취급하였다.

25)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26) 松村明編, 『大辭林 第三版』, 三省堂編修所, 2014.

에서 생겨났다. 그 이전 교토의 오복상들은 가두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 오복의 유통은 중매상과 도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네지는 구조였지만, 오복점이라고 했을 경우는 대부분 소매점을 말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1910년대 중반 이후 몇몇 대형 오복점이 백화점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sup>27)</sup>

부산이 개항된 후 일본 거류지 중심가에는 많은 상점이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복점과 양복점은 비교적 초기부터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의복의 변화는 도시의 새로운 생활양식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양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옷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복은 입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내면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 또는 그 속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생활하던 조선인들이 매일 마주한 ‘패션’의 변화는 시각적으로 사회의 변화됨을 느끼게 하는 것과 함께 타자의 내면과 외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 조선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의 ‘섞임의 공간’, 거류지에서의 유행의 침투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았다. 예컨대 부산의 조선인 사이에서 일본제 부채가 유행하고 있었고 이를 서울 사대부들도 애용하고 있다거나, 조선인 중에서도 일본 복장을 입고 일본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일본인들도 전혀 조선인이라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도 있었다.<sup>28)</sup> 일본인들 또한 일본 내에서 유행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최신상품들이 바로바로 부산항으

27) 김승·양미숙 편저, 『신편부산대관』, 선인, 2010, 308쪽.

28) 『朝鮮新報』 제5호(1882.3.5.) 雜報. 반대로 한복을 입은 일본인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에 대한 욕망으로 조선인이 일본 복장을 했던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나, 조선인=야만, 일본인=문명이라고 생각한 일본인들이 조선인의 복장을 입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도 히로부미[伊藤博文]나 부산의 대표적 일본인 자본가였던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등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은 식민자의 피식민자에 대한 우월의식,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기념으로 찍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 유입되고 있었다. 시각적인 것은 근대 도시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옛것과 새것 사이, 전통과 근대성 사이의 대비가 만남의 광장인 도시의 거리에서 변화된 도시 경관과 함께 직접 관찰되었다.<sup>29)</sup> 온갖 유행하는 것들이 이곳에 있었다. 의복은 물론, 구두, 화장, 그제 걸맞은 액세서리 등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은 식민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선택되어 수용, 전파되었다.

1910년 강제병합 이전 일본 거류지 내 주요 오복점은 오오에[大惠], 이이다[飯田], 우에다[上田], 야마모토[山本], 키모토[木本] 등이었다.<sup>30)</sup> 야마모토오복점은 1886년 일본 거류지 내 행정(幸町)에서 시작되었다.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1884년 조선으로 건너온 야마모토 분조[山本文藏]는 1885년부터 장류 양조를 시작하였고, 1886년에 오복점을 개업하였다. 1887년에는 아들 준이치[山本純一]가 도향하여 부친의 가업을 이어 받아 경영하였다. 준이치는 1897년 무렵 부산의 주요 일본인 상인 39명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업을 성장시켰다.<sup>31)</sup> 1908년에는 준이치의 아들 라이노스케[山本賴之助]가 가업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였다. 오오에오복점은 용두산 변천정 입구의 돌계단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특히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모았으며, 일본 각지의 특산품 및 진귀한 직물을 다수 입하하여 진열하고 있어 부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었다.<sup>32)</sup> 1916년 10월 미나카이[三中井]오복점에 인수되었는데,<sup>33)</sup> 1926년 미나카이오복점은 서양식 3층 건물로 점포를 신축하고 부산 최초의 최신식 백화점으로 발전하였다<sup>34)</sup>.

29) 마이크 새비지, 알렌 와드 저·김왕배, 박세훈 역, 『자본주의도시와 근대성』, 한울, 1996, 155~156쪽.

30) 『朝鮮之實業』 제1호, 1905.5.20, 5쪽.

31) 『在外本邦人店鋪調査書-農商務省商工局臨時報告』第五冊, 1897.

32) 『釜山日報』1914.12.11. 年末の店先, 大惠商店.

33) 『釜山日報』1916.10.5. 三中井吳服店開業.

34) 김승·양미숙 편역, 『신편 부산대관』, 선인, 2010, 546쪽.

한편 조선에서는 관복의 간소화와 갑오개혁에서의 의제 개혁 및 1895년 단발령을 계기로 상류층,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양복착용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도 양복점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양복점은 ‘양복을 만들거나 파는 가게’로서 양복의 제작소이거나 판매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복점은 양복상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보통 양복이라 하면 남성복만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서양식의 여성복, 아동복도 함께 제작, 판매하였다.<sup>35)</sup> 부산의 주요 양복점은 스야마 [陶山], 고쿠분[國分], 조지야[丁字屋](변천정), 야마네[山根] 등이었다.<sup>36)</sup> 양복점은 기본적으로 양복 제작 기술을 이해하고 있거나 양복을 제작해온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였다. 부산의 대표적인 양복상인 스야마 상점의 점주 스야마 타로[陶山太郎]는 1892년 본점 1정목에 양복점을 차렸다(1905년 변천정 3정목으로 확장 이전). 도쿄 긴자의 유명 양복점에서 기술을 배웠고, 이후 부산으로 건너와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양복봉제사로 새로운 무늬의 양복지와 각종 의류를 직접 디자인 제작하여 공급하였다.<sup>37)</sup>

양복의 유행으로 인해 구두, 안경, 시계, 양말, 커프스 등 양복 부속품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속품을 주로 판매하던 곳이 잡화점이었다. 1905년 경 부산의 일본인 가운데 94명이 잡화상을 하고 있었고, 30명 정도가 시계상, 방물상, 신발가게, 장신구판매상 등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잡화의 수요는 대단하였다(아래 <표 1> 참조).

35) 김순영, 『한국 근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과 생산 및 판매 주체』, 『복식』 67, 2017, 91쪽.

36) 『朝鮮之實業』 제1호, 1905.5.20, 5쪽.

37) 『朝鮮日報』 1905.3.1.(3) 대상점방문기(8).

<표 1> 부산 거주 일본인 업종별 인원수(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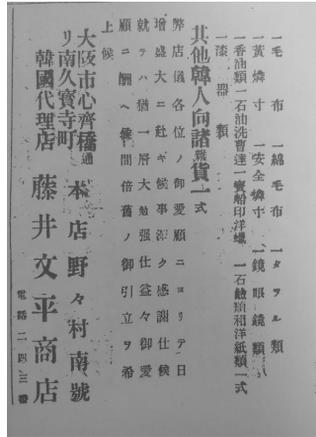
(단위 : 명)

업종	인원수	업종	인원수	업종	인원수
무역상	43	술집	37	여인숙	20
잡화상	94	중매상	26	은행	3
과자상	92	조운問屋	20	서양등 상	3
금물상	17	곡물상	57	통조림상	7
연초상	18	목탄상	5	방물상	13
도기상	13	전등회사	1	시계상	6
약종상	16	양복상	6	두부상	11
설탕상	5	목재상	5	정미소	2
창호상	4	하숙상	18	신발가게	3
토목청부	13	표구사	2	목수	57
총포상	2	綿商	11	전당업	8
생철상	8	철물상	13	造花業	1
과일건어물	36	대서업	6	세탁업	8
우육상	6	장신구상인	11	창고회사	1
포목상	22	된장상	2	매달이기계제조	2
장유상	3	仕入職	5	철기업	4
어상	23	절임식품업	3	석공업	6
철공업	9	요리점	13	이발업	33
통장수	9	연예장	3	장유양조	9
석탄상	2	금은세공업	4	예기	239
찻집	2	나무꾼	25	수산회사	1
해산물	2	과일업	3	우유업	3
미장업	15	제등업	3	인력거	47
다다미직조	7	대바구니제작	1	음식물행상	115
인쇄업	6	遊技場	3	구두제작	3
사진사	3	목욕업	10	인쇄업	4
비단가게	3	음식점업	53	도선업	2
술양조	6	遊藝師匠	2		

\*참조: 榎澤仁助, 『釜山港勢一斑』, 1905, 82~83쪽.

잡화점은 일본 거류지 본정에서 변천정에 이르는 사이에 주로 산재해 있었으며, 시바타[柴田], 사이토[齋藤], 다케스에[武末], 다카노야[高野屋], 후쿠에이 상회[福榮商會], 후지이 분페이 상점[藤井文平商店] 등이 가장 인기 있었다.<sup>38)</sup>

오사카 신사이바시에 본점을 둔 노노 무라나고[野野村南號]의 한국대리점 후지이 분페이 상점에서는 모포, 면포, 수건, 성냥, 안경, 향수, 비누, 서양종이류, 칠기류 등을 취급하였다. 이 상점은 아예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광고를 내걸고 잡화 세트를 판매했다.<sup>39)</sup> ‘和洋’ 잡화상 후쿠에이 상회는 부산 장수동 중앙에 위치한 서양식 2층 건물의 상점이었다. 이 상점 또한 도쿄 마루젠 상회[丸善商會]의 부산지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점주 미와 쇼지로[三輪初治郎]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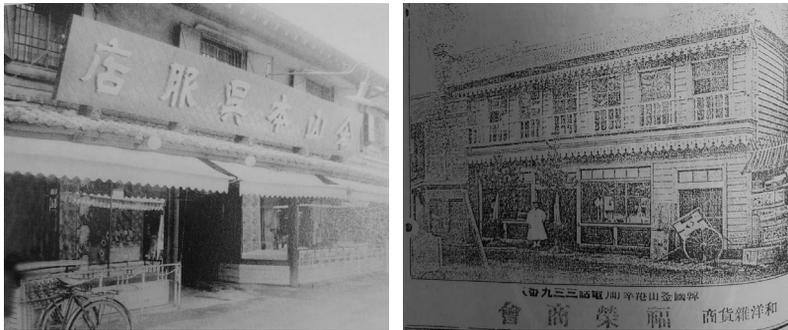


<그림 3> 후지이 상점 광고  
(『朝鮮日報』 1905.1.24.)

말 대매출은 물론 박리다매,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 도쿄에서 최신 유행 상품을 골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쿄주의’의 이 가게는 화려한 점두 장식과 물품들을 은제 진열장에 넣어 판매한 것으로 유명했다. 취급 품목은 모자, 양산, 모포, 셔츠, 구두, 양말, 양복 부속품, 금은제 안경 및 반지류, 비누, 치약, 완구 문방구, 서양소간물 각종, 고급 화장품, 도쿄 최신 소간물 각종, 도쿄 風月堂 서양과자, 도쿄 최신 유행품 일체를 판매했다.<sup>40)</sup> 후쿠에이 상점은 전국적 규모의 잡지에 자주 광

38) 『朝鮮之實業』 제1호, 1905.5.20, 5쪽.  
39) 『朝鮮日報』 1905.1.24.(4) 광고.  
40) 『朝鮮之實業』 제9호, 1906.2.15, 20~21쪽.

고를 하였기 때문에 목포, 군산, 원산 기타 방면에서도 주문이 많았다.<sup>41)</sup> 후쿠에이 상점의 경우를 통해 볼 때, 상점의 규모에 따라서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의 집산지인 부산에 거점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상업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부산에는 무역업과 잡화점을 겸영하는 일본인들도 꽤 존재했는데 이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한다.<sup>42)</sup> 변천정 3정목에 위치한 시바타 洋物店은 서양 잡화를 주로 취급하였다. 여행용 화장도구, 향수, 향유, 화장용 백분, 치약, 거울, 쌍안경, 나이프, 담배파이프, 사진첩, 셔츠, 양복, 유행모자, 마차장식, 모포, 양산, 부인용 메리야스, 양말, 브러시 등이었다. 이곳은 말그대로 생활필수품부터 사치품까지 온갖 것들이 모여 있는 ‘잡화점’이었다.



<그림 4> (左)山本吳服店(1930년대) (右)福榮商會(1905년 경)  
서양식 건물 앞 흰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남성의 모습이 이채롭다.

이러한 상품의 소비를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상업회의소에서

41) 『朝鮮之實業』 제19호, 1907.1.10, 32쪽.

42) 1897년 부산의 주요 일본 상인 39명 중 무역업 겸 잡화류 취급을 겸영하고 있는 사람은 5명으로 확인된다(『在外本邦人店鋪調査書 農商務省商工局臨時報告』 第五冊, 1897).

는 상품진열관을 오픈하였다. 1904년 준공된 부산상품진열관은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신제품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1905년 개관 이래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관하여 하루 평균 3~4천명을 상회하였다. 상품진열관 참관 후 자연스럽게 그 부근에 집중되어 있는 잡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유도하여 잡화점이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sup>43)</sup>

## 2. 전문음식점의 등장

음식 또한 문화이다. 사회의 변동은 음식 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음식은 ‘맛’이라는 원초성으로 국민국가의 형성과 국민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sup>44)</sup> 음식문화는 각 민족들이 이주해 간 현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이주자 공동체의 성격, 본국과의 접촉 정도 등에 따라 그 정체성의 보존이나 변형 정도가 결정된다.<sup>45)</sup> 일본인들의 이주와 함께 거류지에는 다양한 일본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섰고 아울러 서양음식점도 생겼다. 외식문화가 거의 없었던 때에 등장한 전문음식점은 그 자체가 새로운 소비문화의 탄생이었다.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은 시대와 세대를 불문한다.

근대적 형태의 일식, 서양식 등 전문음식점은 개항 이후 등장하지만, 부산 근처의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맛은 그리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미 개항 이전부터 부산에서는 일본 음식이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전근대 시기 초량왜관은 일본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기

43) 『朝鮮之實業』 제2호, 1905.6.20, 27쪽.

44) 이종수, 「조선시대 부산과 왜관의 음식문화 교류와 변동 분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2016, 193쪽.

45) 이종수, 위의 논문, 195쪽.

에 양국의 생활문화, 풍속 등이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예컨대 이 학규가 김해에 유배되었던 시절에 쓴 『洛下生全集』(1809)의 「草梁倭館詞」, 「金官竹枝詞」 등에는 초량왜관의 일본인들이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기술되어 있다. 19세기 전반 김해 지역에서는 일본산 물품을 사용하는 부호들이 많았다. 이들은 붉은 칠이 된 우산을 썼으며 일본도를 차고, 일본산 고급 미농지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일본산 접부채를 들고 일본풍의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 음식도 널리 퍼졌다. 이러한 일본풍은 왜관 주변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조선인 관리가 왜관에 들어가면 일본 측은 일본 음식을 접대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요리가 勝歌妓, 즉 오늘날의 스키야키였다. 때에 따라서는 대마도산 밀감과 우동면을 신선로에 끓여 먹기도 했다.<sup>46)</sup> 왜관을 통해 유입된 일본 물품과 문화의 확산은 부산 사람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881년 부산거주 일본인 가운데 음식점업에 19명, 요리옥에 13명이 종사하고 있었는데,<sup>47)</sup> 1905년 무렵에는 요리옥은 거의 그대로지만 음식점업 종사자가 5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sup>48)</sup> 과자상은 92명이나 되었다.<sup>49)</sup> 다만 서양음식점은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였다. 거류지 내의 대표적인 서양음식점은 小倉庵(행정)과 新堂(변천정)이었다. 小倉庵에서는 서양음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구장이 부속되어 있어 오락의 기능을 겸비하였다.<sup>50)</sup> 서양요리점은 친목회, 송년회, 만찬회 등 각종

46) 김성진, 「부산왜관과 한일간 문화교류」, 『한국문화논총』 22, 1998, 61~64쪽.

47) 外務省記録局編, 『通商集編』, 1881년도, 138쪽.

48) 당시 요리점과 음식점은 구별되었다. 부산에는 1883년 東京亭이라는 요리옥을 시작으로 1885년에는 크고 작은 요리점 18호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釜山樓, 安樂亭은 대표적인 요리옥인데,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예기를 곁들여 유곽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유곽 또한 개항장 도시 부산이 가진 새로운 도시문화라고 할 수 있다(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 1916, 323~326쪽).

49)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1905, 82~83쪽.

50) 『朝鮮日報』 1905.3.3.(3) 광고.

연회가 개최되던 곳이기도 했다.

1905년 西町 3정목에 개점한 서양음식점 프랜드亭[フランド亭]의 메뉴는 수십 가지였는데, 대표적으로 각종 수프, 생선프라이, 커틀릿, 크로켓, 오믈렛, 햄, 슈니첼, 라이스카레, 스테이크류를 주로 판매하였다. 식사를 마치면 홍차나 커피가 디저트로 제공되었다. 서양요리점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메뉴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양식으로 부르는 것으로, 일본과 서양 절충식 요리였다. 서양요리는 카페에서도 맛볼 수 있었다. 행정 思案橋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던 森커피점[森コヒ店]은 ‘샷포로맥주 홀’을 갖추고 경양식을 제공하던 곳이었다. ‘실내청결, 요리정선, 조리신속’을 특색으로 내세웠다.<sup>51)</sup> 커피의 경우 조선인 상류층 및 왕실에서도 기호품으로 즐기던 것이었기에 유망한 사업 중 하나였다.<sup>52)</sup>

#### IV. 맺음말

개항 이후 옛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일본 거류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부산으로 건너와서 상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행정, 변천정, 본정 등의 변화가에는 근대적 상업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패션의 선두주자 의복과 여러 생활 잡화를 파는 가게, 일식·양식 등의 이제까지 쉽게 접하지 못한 전문음식점들이 그 거리를 가득 매웠고,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 냈다. 상점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화려한 장식과 상품진열, 경품행사, 바겐세일 등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

51) 『朝鮮之實業』 제5호, 1905.9.25, 광고.

52) 『朝鮮之實業』 제25호, 1907.7.20, 22~23쪽.

을 집중시켰다.

그렇다면 새로운 소비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계층은 누구였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소비문화를 조선인들이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일본 거류지는 일본인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로 일본인들이 소비문화의 향유자이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그 공간과 문화 속에 조선인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상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도시공간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 향유자는 식민자들이고 원주민들은 여기에서 완벽히 소외된 자들이라고 단순히 이분법적 논할 수 없다. 식민지 도시는 필연적으로 식민자와 원주민들의 ‘섞임’과 ‘혼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부분만을 부각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섞임’과 ‘혼재’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와 ‘배제’, 그에 따른 ‘불균등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식민성을 담보한 근대적 소비문화의 발전은 시작부터 불균등할 수밖에 없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에서 보이는 불균등 발전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해갔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53)</sup> 물론 상품별로 조선인들의 소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 예컨대 양복점의 경우 조선인 상류층 및 고위관료출신들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양요리점 역시 친목회, 송년회, 만찬회 공간으로 활용되었기에 일반 조선인보다는 상류층들이 주로 이용했을 것이다. 반면 잡화점은 조선인 일반의 근대에 대한 욕망에 불을 지른 상품이었음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한계를 지적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여기서는 개항장 부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곳에

53) 구모룡, 「접촉지대 부산을 향한 제국의 시선」,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2018, 311쪽.

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대적 소비문화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 서울에 정착되어가는 과정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후부터,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산은 수출입항으로서 사람과 상품이 드나드는 관문의 기능만 유지될 뿐 소비문화의 중심은 서울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내에서 부산이 가지는 위상의 변화도 초래했을 것이다. 둘째, 여기서는 일본 거류지 시기의 소비문화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각 시기별 부산의 소비문화와 관련한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하다. 상점, 상품에 대한 비교연구는 물론 판매자와 소비자, 특히 각 시기별 일본인과 조선인 수용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 참고문헌 |

- 『朝鮮之實業』, 『朝鮮日報』(1905), 『釜山日報』, 『朝鮮新報』  
 外務省記録局編, 『通商彙編』, 1881.  
 『在外本邦人店鋪調査書-農商務省商工局臨時報告』 第五冊, 1897.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1905.  
 釜山商業會議所, 『釜山要覽』, 1912.
- 구모룡, 「집속지대 부산을 향한 제국의 시선」,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2018.  
 권혜경, 「현대 소비문화의 형성과정에 나타나는 젠더의 정치성과 고착화, 그리고 그 전복적 대응」, 『영미문화페미니즘』 14, 2006.  
 그램 질로크 저 ·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김성진, 「부산왜관과 한일간 문화교류」, 『한국문화논총』 22, 1998.  
 김순영, 「한국 근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과 생산 및 판매 주체」, 『복식』 67, 2017.  
 김승 · 양미숙 편역, 『신편 부산대관』, 선인, 2010.  
 김은정 · 윤태영 · 고수진 · 고애란, 「한국 근대 소비문화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복식과 관련된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

2010.

김은희·박용숙, 『개항초기(1876~1885)의 일본인의 상업 활동-부산항을 중심으로』, 『코기토』 15, 1976.

나리타 류이치 저·서민교 역, 『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 뿌리와 이파리, 2011.

마이크 새비지, 알렌 와드 저·김왕배, 박세훈 역, 『자본주의도시와 근대성』, 한울, 1996.

사쿠라이 군노스케 저, 한상일 역, 『조선시사』,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출판부, 1993.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이연, 2013.

Horace N. Allen 저·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 출판부, 1991.

앤소니 킹 저·이무용 역, 『도시문화와 세계체제』, 시각과 언어, 1999.

이우영, 『한말 일본인 거류지의 설정과 그 역할』, 『경북대학교 논문집』 13, 1969.

이종수, 『조선시대 부산과 왜관의 음식문화 교류와 변동 분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2016.

전성현, 『일제시기 부산의 중심 상점가와 도시문화』, 『역사와 경계』 92, 2014.

\_\_\_\_\_, 『‘조계’와 ‘거류지’ 사이-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입장 차이와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주영하, 『음식인문학』, 휴머니스트, 2011.

차철욱·양홍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구』 26, 2012.

카르네프 외 저·김정화 외 역, 『내가 본 조선, 조선인』, 가야넷, 2003.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橋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松村明編, 『大辭林 第三版』, 三省堂編修所, 2014.

투고일 : 2019. 11. 08. 심사완료일 : 2019. 12. 06. 게재확정일 : 2019. 12. 17.

| Abstract |

Consumption space and consumption culture of Japanese  
settlement in the Open Port of Busan

Lee, Ga-Yeon

With the opening of the port in 1876, Joseon had significa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culturally, there was a wind of change.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in Busan, a Japanese settlement has been built around Choryang Waegwan[초량왜관]. This was a space for Japanese people's residence and commerce and a place of power as a colonial ruler. Nevertheless, cultural changes began to take place around this place. It is the birth of a modern capitalist consumption culture. The Japanese settlement in Busan was similar to Japan i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city. The change in spatial structure has affected the entire urban cultural life.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and commerci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such as shrines, temples and theaters were featured here. A colonial city is predicated on being Unequality. Busan, however, has become a “mixed space” with a mixture of shipbuilding, Japanese and Western. At that time, Busan was a place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and the power relations of the colonizers and the native was created. But most of all, it was also a place where modern desires were stirred beyond all this. With many stores located in the Japanese settlement, Busan gradually changed from a place of life to a huge products exhibition hall. Thus, the increase in consumption was a natural phenomenon. Consumption is not just an economic activity, but a cultural phenomenon that reflects the time and space in which consumption takes place. In the Japanese settlement, many

Japanese engaged in commerce. The streets were filled with restaurants that were not easily accessible until now, such as clothes, shops that sell various daily miscellaneous items, and Japanese and Western restaurants. These created a new culture of consumption. Shops have attracted people's attention by doing business activities such as fancy decorations, product promotions, prize giving events and bargain sales to make more profit. Then, who enjoyed this consumer culture most? What's clear is that when talking about consumption space and consumption culture, it can't simply be dichotomous: It can't be the enjoyer are the colonists and the natives are the completely marginalized. Colonial cities inevitably have the "mixture" of the colonists and natives. But there is also a limit to highlighting this only. This is because there is clearly a 'boundary' and 'excluding' of each other and an 'unequality' accordingly. In this regard, the development of modern consumer culture based on colonialism is unequal from the beginning.

**Keyword :** Busan, Japanese settlement, Commerce, Culture, Consumption culture, General store, Kohukuten[呉服店], Tailor shop, Restaurant, Coloniality